

2025 년 12 월, 주님이 인도하신 사역의 길

1. 터키 시놉(Sinop) – 북해의 끝에서 만난 열린 마음들

이번 12 월 사역은 김요한 선교사님의 초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터키와 파키스탄이라는 결코 쉽지 않은 지역으로의 여정이었기에, 출발 전부터 우리는 이 사역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이 될 것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보기도로 준비했고, 철저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12 월 3 일 텍사스를 떠나, 4 일 LA 에서 유진 선교사님과 조이 선교사님을 만나 함께 길을 나섰고, 5 일 터키 이스탄불을 거쳐 앙카라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Omid, Ali 사역자들을 만나며 이번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앙카라에서 다시 다섯 시간을 달려 도착한 시놉(Sinop)은 터키 북해에 자리한 조용하고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그곳에 모인 아프간 교회 성도들과 ABC 학생들의 열린 마음이었습니다.

주일예배를 함께 드리고, 월요일부터는 오전에는 무슬림 가정들을 직접 방문하며 심방과 전도를 이어갔고, 오후에는 ABC 강의가 계속되었습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T & I 부부의 헌신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매일 점심을 정성껏 준비해 주었고, Z 집사님은 누가 부탁하지 않았음에도 매일 아침 빵을 사와 함께 아침 식탁을 차려 주셨습니다.



<신라면 저녁 간식으로>

저녁에는 우리가 식사를 준비하며, 학생들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느새 자녀들까지 모여 일곱 명의 아이들을 함께 돌보는 상황이 되었고, 육체적으로는 쉽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함께한 축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헌신된 사역자들과 또 무슬림 이웃들의 마음이 얼마나 열려 있는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서로를 집으로 초대해 식탁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한방 치료를 하며 관계를 쌓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 일하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2. 파키스탄 카라치 (Karachi) – 환대와 긴장, 그리고 생명의 물

카라치 사역은 처음 계획에 없던 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필요를 느껴 연락했을 때, 그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호텔이 비싸다며, 자신들이 거주하던 아파트를 내어 주기까지 한 그들의 환대는 깊은 감동이었습니다.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라치 지역 한복판에서 성탄절 전도집회가 열렸습니다. 총을 든 시큐리티 가드들이 우리를 보호하며 동행했고, 60 명이 타고 오기로 한 버스가 고장 나 참석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영적 전쟁을 그대로 드러내는 듯했습니다.

다음 날 방문한 기독교 학교는 또 다른 감동이었습니다. 초·중·고 과정이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학생들은 이슬람 교육 대신 기독교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학교 졸업생들의 국가시험 성적이 매우 우수하여 대학 진학에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건물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필립 목사님의 아버지는 은퇴금을 털어 3층 건물을 올렸지만, 교실이 모자라 한 공간에서 여러 학년이 함께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교실에서 만난 아이들의 눈은 너무도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주님, 이 아이들이 마음껏 배우고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소서. 이 땅에 주님의 사람들이 학교를 통해 세워지게 하소서!”

12 월 15 일 새벽 3 시, 우리는 또 다른 사역을 위해 다섯 시간을 달려 미르푸르 카스와 구자도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카라치를 벗어나자, 언제든 총을 든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는 위험한 지역이었기에 히잡을 쓰고 기도하며 이동했습니다.



그곳은 끝없이 펼쳐진 바나나와 망고 농장이었고, 무슬림 농장주 아래에서 힌두인들이

사실상 노예와 다름없는 조건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연봉 100 달러, 오염된 구덩이 물을 마시며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필립 선교사님은 우물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서 두 곳에 우물을 파주었습니다. 펌프질을 하자 맑은 물이 솟아올랐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

는 기쁨이 번졌습니다. 첫 번째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었지만, 두 번째 지역에서는 마음이 열려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죠이 선교사님의 아이들을 향한 열정적인 전도로 온 마을이 함께 웃고, 음식을 나누며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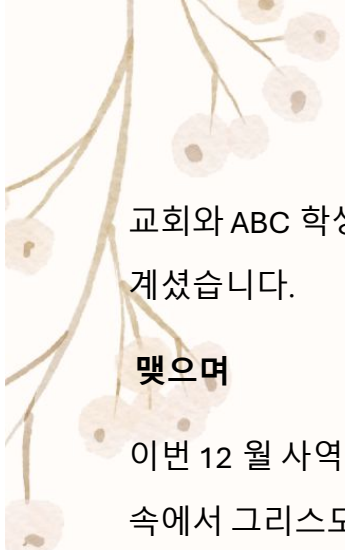
우리가 떠날 때 아이들은 마을 끝까지 우리를 따라왔고, 현지 선교사님은 더 머물며 성경을 나누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모습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3.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Islamabad) - 고난 속에서 훈련 받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이슬라마바드에서는 짧지만 강도 높은 ABC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도시 곳곳에는 장총과 권총으로 무장한 경비들이 서 있었고, 우리가 머문 에어비앤비는 지하 공간이었지만 오히려 안전한 예배와 강의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유진 선교사님의 강의는 오전과 오후, 저녁까지 이어졌고, 다음 날은 죠이 선교사님의 강의를 같은 강도로 계속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축복 선교사의 예배인도로 모든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저녁마다 형제들이 원하는 곳으로 나가 식사를 했고, 마지막 날 아프간 음식을 먹으러 가던 중 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연행되어 취조를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비자가 없는 형제들은 함께하지 못하고 줌으로 강의를 들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아프간



교회와 ABC 학생들을 오늘도 십자가의 길 위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맺으며

이번 12 월 사역을 돌아보며 분명히 느낀 것은, 주님께서 ABC 학생들과 사역자들을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따라갔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길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 열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터키와 파키스탄, 그리고 흩어진 아프간 형제자매들을 마음 깊이 축복합니다.

동역자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 사역이 이루어졌음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